

수도권 일부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구강보건에 관한 지식과 태도, 행동의 상관성 연구

김 석 환, 김 재 흥*, 김 지 환*

고려대학교 대학원 보건과학과 보건행정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보건과학과 치의기공전공*

Correlation study of the oral health knowledge, attitude and behavior in the high grade students of elementary school in some regions of the metropolitan

Seok-Hwan Kim, Jae-Hong Kim,* Ji-Hwan Kim*

Department of Health Science Specialized in Healthcare Management, Graduate School, Korea University
Department of Health Science Specialized in Dental Lab. Science & Engineering, Graduate School, Korea University*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obtain data that can be utilized in the planning of oral health education plan, by surveying the correlation between oral health knowledge, attitude, and behavior among high grade students elementary school in some regions of the metropolitan.

Methods: The subject of this study through the survey of the recognition of the oral health,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for 548 male and female students who were in the 4th, 5th, 6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in some regions of the metropolitan. Statistical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he SPSS 12.0 with t-test, ANOVA, and correlation.

Results: Knowledge of oral health was very high. Correct attitudes and positive behavior were indicated.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oral health knowledge according to school year and parents' dental condition($P < .05$). The student one recording oral health behavior degree where the oral health knowledge is high appears highly, considers statistically the difference which it was visible. Positive correlation was significantly observed among oral health knowledge, attitudes, and behavior. Especially, attitudes and toothbrush method were highly correlated($r = .853$).

Conclusion: Oral health program through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their parents for the development of proper oral health care education programs continue to be made should be considered.

○ **Key words :** elementary school student, oral health attitude, oral health behavior, oral health knowledge

교신저자	성명	김 지 환	전화	02-940-2843	E-mail	kjh2804@korea.ac.kr	
	주소	서울시 성북구 정릉3동 산1번지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 호림관 420호					
접수일	2011. 10. 28		수정일	2011. 12. 8		확정일	2011. 12. 28

I. 서론

구강 건강의 주체인 치아는 소화기계통의 일부로서 음식을 저작하고 타액과 혼합하는 물리적 소화를 담당하므로 치아 건강은 전신건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근래에 이르러 경제수준의 향상으로 영양상태가 좋아짐에 따라 학생들의 신체 발달상태는 상당히 개선되었으나, 구강건강상태는 오히려 더욱 나빠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통계청, 2001). 구강건강은 개인에게 주어진 특권으로서 정확한 구강보건 지식을 바탕으로 올바른 태도와 행동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보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실천하려는 개인의 노력 또한 매우 중요하다(이종도 등, 2008).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공중구강보건사업의 일환으로 학생들의 구강질환발생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증진시키려는 학교구강보건의 중요성은 예전부터 논의되어 오고 있으며 실제 초등학생들의 치아우식발생율은 성인들의 경우보다 높고 구강보건의 관리 면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김연화, 2006). 치아우식증의 유병율 증가는 보철치료수요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혼합치열기 시점에서 초등학생들의 구강관리실태나 치과보철물의 장착과 관련된 분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겠다.

최근 주요 OECD 국가별 12세 아동의 우식경험영구치수는 대부분의 국가가 과거에 비해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평균 2개미만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1972년 0.6개, 1979년 2.3개, 1990년 3.0개, 1995년 3.1개, 2003년에 3.3개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내다가 2006년에는 2.6개로 소폭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주요 OECD 국가에 비해서는 여전히 구강건강상태가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보건복지부, 2007). 또한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3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에서 12세 아동의 영구치우식경험율이 76%로 나타났으며 이는 OECD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높은 수치이고, 이 중에서 영구치에 발생된 치아 우식증의 45%는 방치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보건복지부, 2004).

초등학교 시기는 유치가 영구치로 교환되고 치아우식증과 부정교합에 기인한 구강건강 장애가 시작되며, 초등학교 상급학년에서는 이미 치은염이 발생하는 등 일생의 구강건강기반이 조성된다(김종배 등, 2004). 특히, 신장과

체중이 급증하는 학령기는 일생을 통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건강유지에 기초를 만들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몇 가지 이유에서 치아건강의 중요성이 성인들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치아가 나쁘면 저작장애가 발생하고 유치가 일찍 손상되거나 빠져 버리면 영구치의 정상적 성장을 방해하여 위치이상을 초래할 수 있으며 어린이 치아는 발음을 배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일찍 영구치를 상실하게 되면 불확실한 발음 습관이 배게 되고 또한 유치는 일찍 잃으면 악골 발육에 지장이 있다. 특히 유치의 결함은 얼굴 모양에 나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성에 대단히 나쁜 영향을 초래하게 된다(배현숙, 2000). 이 시기에 형성된 바람직한 구강보건관리 습관은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될 가능성이 많고, 구강병 예방과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구강건강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심어주고 구강관리에 대한 행동 양상들을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시켜 줄 구강건강 관리 교육이 필요하다(박춘호 등, 2002). 그러므로 아동에 대한 적절한 구강건강관리를 위해 이들의 구강보건관리 습관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시기에 있어서의 학교구강보건교육의 중요성은 계속해서 강조되어 왔고, 학교구강보건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학교구강보건교육은 구강질환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고, 초등학생들의 구강보건지식을 바탕으로 올바른 태도와 행동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구강보건교육 계획 시 초등학생의 구강보건지식, 태도, 행동을 고려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의 구강보건지식정도과 행동, 태도를 조사해봄으로써 앞으로 학생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조기보철치료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목적은 구강보건관련 기초자료로서 초등학생들의 치아 우식질환 발생과 연관된 지식과 태도, 행동의 관련 정도를 규명하는 것이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경기도 의정부시에 소재한 초등학교

교 중 B초등학교와 서울시 성북구에 소재한 S초등학교 두 곳을 편의추출법에 의해 선정한 후 설문대상으로 4학년, 5학년, 6학년의 고학년 학생을 채택하였으며, 4학년 182명, 5학년 217명, 6학년 164명으로 총 583명이었다. 설문지는 담임교사의 협조를 얻어 배포하였고 담임교사를 통해 설문지 각 항목에 대한 설명을 한 후 개별자기입식 설문지에 기입하도록 하였다. 이들이 응답한 설문지에서 부적절한 응답을 보인 35명을 제외한 본 연구의 최종 연구대상자는 548명이었다.

2.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선행연구(김숙진, 2004)에서 사용된 설문지를 근거로 하여 기존의 문헌고찰을 통하여 본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 후 사용하였다. 세부 문항은 초등학교 학생의 구강보건지식관련 13문항, 구강보건태도관련 6문항, 구강보건행동관련 7문항, 일반적인 특성 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구강보건지식과 구강보건태도, 구강보건행동의 신뢰도는 각 문항이 동일한 차원의 문제를 측정할 것인가의 내적 일관성을 평가하는 Cronbach's α 의 신뢰도계수를 산출하였다(Table 1).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태도와 행동을 의미하며 각 영역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가 지식, 태도, 행동에 대해 각각 0.680, 0.742, 0.723로 나타났다.

Table 1. Reliability of measurement tool

division	question item possibility	cronbach's α
knowledge	13	0.680
attitude	6	0.742
behavior	7	0.723

구강보건지식의 각 문항에 대해 정답자는 1점, 오답자는 0점을 부여하여 최저 0점에서 최고 13점으로 높을수록 구강보건지식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답수가 0-4개, 5-9개, 10-13개인 수준에 따라 각각 '하, 중, 상' 3개의 집단으로 나뉘었다(장분자 등, 2006). 또한 구강보건태도에 대한 6문항은 '그렇다'를 1점으로, '아니다', '모르겠다'를 0점으로 점수를 주어 최고 6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구강보건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3.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의 통계 처리는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12.0. SPSS Inc. USA)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초등학교 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구강보건에 대한 지식, 태도, 행동은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식, 태도, 행동의 차이는 t-test와 one-way ANOVA를 실시하였다. 또한 구강보건지식, 태도, 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을 실시하였다.

III. 결 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 548명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은 성별에 따라 남학생이 302명(55.1%), 여학생이 246명(44.9%)으로 남학생이 약간 많았고, 학년별로는 4학년 177명(32.3%), 5학년 212명(38.7%), 6학년 159명(29.0%)으로 5학년 학생수가 가장 많았다. 그리고 가족 구조는 4명(51.6%)의 구성원이 가장 많았으며, 부모님의 학력에 대한 질문에서는 잘 모르겠음에 대한 대답이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부모님의 학력이 대학교 졸업이상의 응답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부모님의 치아 건강상태에서는 두 분 다 좋다 항목이 46.5%로 가장 높았으며, 잘 모르겠다 30.7%, 어머니만 좋다 14.4% 순이었다(Table 2).

2. 조사대상자의 구강보건 지식

학생들의 구강보건지식의 정답분포를 보면 각 문항에 관한 오답자에 비해 정답자의 수가 많았다. '초콜릿, 과자, 사탕 등은 충치를 잘 발생시키는 음식이다' 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칫솔질을 해야 한다' 는 각각 정답비율이 95.1%, 94.0%로 매우 높은 지식수준을 보였으나, '과일, 우유, 채소 등은 충치를 잘 발생시키는 음식이다', '유치는 나중에 영구치로 갈기 때문에 치료 할 필요가 없다' 는 정답자율이 40.9%, 41.4%로 나타났으며, 특히 '충치는 세균이 일으키는 것이므로 음식물과는 상관이 없다' 항목에서는 20.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Table 3).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division	frequency	percentage
gender	male	302	55.1
	female	246	44.9
grade	4th grade	177	32.3
	5th grade	212	38.7
	6th grade	159	29.0
father educational background	middle school graduation	7	1.3
	high school graduation	81	14.8
	above university graduation	200	36.5
	do not know	260	47.4
mother educational background	middle school graduation	8	1.5
	high school graduation	124	22.6
	above university graduation	164	29.9
	do not know	252	46.0
parents' dental condition	only father is good hygiene	20	3.6
	only mother is good hygiene	79	14.4
	both are good hygiene	255	46.5
	both are not good hygiene	26	4.7
	do not know	168	30.7

Table 3. Oral health knowledge

Unit: N(%), N=548

question	yes	no
1. The periodical dentistry visit time is above 1 at 1 years	378(69.0)	170(31.0)
2. When the tooth breaks, it has the tooth which breaks and it goes to a dentistry	490(89.4)	58(10.6)
3. Toothbrushing needs to be certainly done before going to sleep	515(94.0)	33(6.0)
4. When wiping at the side where it will reach it is polished most cleanly	436(79.6)	112(20.4)
5. One toothbrush quality hour 3 minute degree is suitable	419(76.5)	129(23.5)
6. Toothbrushing is effective only when doing after a meal	332(60.6)	216(39.4)
7. The best way to prevent tooth decay is the toothbrushing	452(82.5)	96(17.5)
8. Thinking which influence the food I eat has upon health of teeth	110(20.1)	438(79.9)
9. Fruit, milk, and vegetable are food of making teeth clean	224(40.9)	324(59.1)
10. Chocolate, biscuit, and candy are food of causing a decayed tooth well	521(95.1)	27(4.9)
11. Fluorine toothpaste is helpful for preventing a decayed tooth	341(62.2)	207(37.8)
12. A decayed tooth is caused by failing to brush teeth well	458(83.6)	90(16.4)
13. Custody there is not a necessity which it will treat in order finally to change with the permanent teeth	227(41.4)	321(58.6)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구강보건지식

1) 성별 및 학년별에 따른 구강보건지식 수준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자가 '상' 159명(52.6%), '중' 138명(45.6%), '하' 5명(1.6%) 이었으며, 여자는 '상' 119명(48.3%), '중' 126명(51.2%), '하' 1명(0.4%)으로 남학생은 '상' 집단에서 여학생은 '중' 집단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5$). 그리고 학년별로 살펴보면 4학년은 '상' 87명(47.4%), '중' 91명(51.4%), '하' 2명(1.1%)이었으며, 5학년은 '상' 108명(50.9%), '중' 103명(48.5%), '하' 1명(0.4%)이었고, 6학년은 '상' 88명(55.3%), '중' 70명(44.0%), '하' 3명(1.8%)으로 고학년일수록 구강보건지식 수준은 '상' 그룹이 높게 나타났으며, 학년에 따른 구강보건지식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Table 4).

2) 부모의 학력과 치아 건강상태에 따른 구강보건지식 수준

부모의 학력에 따른 구강보건지식 수준을 보면 어머니

의 학력과 아버지의 학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5$). 부모의 치아건강상태에 따른 문항에서는 '두분 다 좋다' 의 항목에서 구강보건지식 수준 '상' 그룹이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P<.05$)(Table 4).

4. 조사대상자의 구강보건지식 수준에 따른 구강보건태도

구강보건태도의 정도를 '그렇다' 는 1점, '아니다', '모르겠다' 를 0점으로 하였을 때 총 6개의 문항에서 전체평균이 2.46이었다. 구강보건태도의 문항 중 '나는 규칙적인 치과검진을 받으려 한다' 고 대답한 학생 중 구강보건지식의 수준이 '상' 그룹 학생의 비율이 70.8%로 높게 나타났다. 구강보건지식의 수준이 높을수록 구강보건태도의 정도도 높았으며, 구강보건지식 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Table 5).

Table 4. Oral health knowledg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rvey subjects

Unit: N(%), N=548

	division	knowledge			total	p
		high(10-13)	medium(5-9)	low(0-4)		
gender	male	159(52.6)	138(45.6)	5(1.6)	302(55.1)	0.709
	female	119(48.3)	126(51.2)	1(0.4)		
grade	4th	84(47.4)	91(51.4)	2(1.1)	177(32.3)	0.021
	5th	108(50.9)	103(48.5)	1(0.4)	212(38.7)	
	6th	88(55.3)	70(44.0)	3(1.8)	159(29.0)	
mother educational background	mid school	4(50.0)	4(50.0)	0	8(1.5)	0.421
	high school	59(47.5)	63(50.8)	2(1.6)	124(22.6)	
	univ.	49(29.8)	115(70.1)	0	164(29.9)	
	do not know	133(52.7)	115(45.6)	4(1.5)	252(46.0)	
father educational background	mid school	4(57.1)	3(42.8)	0	7(1.3)	0.603
	high school	41(50.6)	40(49.38)	0	81(14.8)	
	univ.	101(50.5)	97(48.5)	2(1.0)	200(36.5)	
	do not know	132(50.7)	124(47.6)	4(1.5)	260(47.4)	
parent dental condition	only father	7(35.0)	12(60.0)	1(5.0)	20(3.6)	0.015
	only mother	35(44.3)	42(53.1)	2(2.5)	79(14.4)	
	both	134(52.5)	119(46.6)	2(0.7)	255(46.5)	
	both not	16(61.5)	10(38.4)	0	26(4.7)	
	do not know	86(51.1)	81(48.2)	1(0.5)	168(30.7)	

Table 5. Oral health attitude according to oral health knowledge level

Unit: mean±sd, N=548

division	oral health knowledge			p
	high(10-13) n = 280	medium(5-9) n = 263	low(0-4) n = 6	
oral health attitude	3.08±1.62	2.81±1.63	1.50±0.54	0.014

5. 조사대상자의 구강보건지식 수준에 따른 구강보건 행동

학생들의 구강보건지식과 행동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구강보건지식이 '하'는 2명(0.3%), '중'은 147명(26.8%), '상'은 142명(25.9%)으로 모두 잇솔질 횟수 '2번'이 가장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잇솔질 소요시간도 '하'는 4명(0.6%), '중'은 103명(18.7%), '상'은 131명(23.9%)으로 '3분이내' 잇솔질 소요시간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간식의 섭취횟수도 구강보건지식의 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잇솔질 방법에서는 '하'는 5명(0.9%), '중'은 190명(34.6%), '상'은 208명(37.9%)으로 '윗니는 위, 아래 아랫니는 아래, 위'의 방법으로 잇솔질 방법을 한다는 대답의 비중이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예방치료 경험과 구강보건교육 경험을 묻는 문항에서도 구강보건

지식의 수준이 '상'의 그룹에 속할수록 '있다'라고 답한 대상자들이 눈에 띄게 많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Table 6).

6. 조사대상자의 구강보건지식, 태도 및 행동 간의 상관관계

구강보건지식의 수준과 구강보건태도 간에는 r=.674(P<.05)로 뚜렷한 양적 선형 상관관계가 있어 구강보건지식 정도가 높으면 구강보건태도도 높아짐을 알 수 있었으며, 구강보건태도와 구강보건행동 중 하루 잇솔질 횟수의 상관관계도 r=.853(P<.01)로 강한 양적 선형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구강보건지식과 태도와 구강보건행동 중 간식섭취 횟수의 상관관계는 부적 선형 관계를 보였으나(r=-.026, r=-.008),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7).

Table 6. Oral health behavior according to oral health knowledge level

Unit: N(%), N=548

division	oral health knowledge			p
	high(10-13)	medium(5-9)	low(0-4)	
toothbrushing frequency				
1 time	20(3.6)	16(2.9)	0	0.077
2 times	142(25.9)	147(26.8)	2(0.3)	
more 3 times	116(21.1)	101(18.4)	4(0.6)	
toothbrushing time				
within 30 sec	10(1.8)	7(1.2)	0	0.380
within 1 min	29(5.2)	25(4.5)	0	
within 2 min	86(15.6)	100(18.2)	2(0.3)	
within 3 min	131(23.9)	103(18.7)	4(0.6)	
do not know	22(4.1)	30(5.4)	0	

division	oral health knowledge			p
	high(10-13)	medium(5-9)	low(0-4)	
toothbrushing method				
horizontal stroke	7(1.2)	8(1.4)	0	0.009
vertical stroke	8(1.4)	15(2.7)	0	
roll stroke	55(10.1)	51(9.3)	1(0.1)	
bass technique	208(37.9)	190(34.6)	5(0.9)	
the number of snacks consumed				
do not eat	12(2.1)	8(1.4)	0	0.798
1 time	16(2.4)	21(3.8)	0	
2 times	82(14.9)	80(14.5)	2(0.3)	
more 3 times	168(30.6)	155(28.2)	4(0.6)	
preventive care				
yes	204(37.2)	175(31.9)	5(0.9)	0.001
no	74(13.5)	89(16.2)	6(1.1)	
experience in oral health education				
yes	198(36.1)	156(28.4)	3(0.5)	0.04
no	80(14.6)	108(19.7)	3(0.5)	

Table 7. Correlation between oral health knowledge, attitude and behavior

N=548

characteristic	knowledge	attitude	toothbrushing Freq	snacks consumed
knowledge	1			
attitude	0.674*	1		
toothbrushing freq.	0.124	0.853**	1	
snacks consumed	-0.026	-0.008	0.373	1

*P<0.05, **P<0.01

IV. 고찰

구강보건학적 측면에서 치아우식증이 빈번히 발생하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구강보건교육이 중요하며 특히 초등학교의 고학년 학생은 왕성한 성장발육과 함께 빈번한 간식 섭취 후 구강관리의 부족과 관심의 결여로 치아우식증과 치은염이 많이 발생되므로 초등학교 학생들의 구강건강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구강건강에 대한 지식 태도, 행동 등을 변화시켜서 일생동안 스스로가 구강건강에 관한 능력을 배양시켜주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김주환 등,

1983).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구강보건은 예방처치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구강보건 지식, 태도 및 행동을 변화시켜 구강건강을 적절히 관리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켜주는 계속적인 과정이다. 더구나 치아우식증으로 인한 치아결손은 재생이 안 되고 초등학교의 건강한 치아의 관리와 보존은 저작기능과 정상교합을 유지하는데 중요하며, 혼합치열기의 영구치 우식은 성인이 된 후 영구적 치아손실의 결과를 유발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초등학교의 구강질환의 예방관리는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학생들의 구강건강을 위해서 일정한 주기로

구강병 예방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구강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연구자는 초등학생들의 구강보건지식과 태도, 행동에 대하여 단면조사를 통해 알아보고, 아울러 구강보건지식과 행동의 관련성을 조사하여 앞으로 성인으로 성장하게 될 초등학교들의 조기보철의 중요성과 예방치료를 위한 정기적인 치과방문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초등학생의 구강보건지식의 정답분포는 정답자가 오답자에 비해 그 수가 많았으며, 지식수준은 13개의 문항을 0~4개, 5~9개, 10~13개인 수준에 따라 각각 '상, 중, 하' 3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였는데 남학생에서는 '상' 그룹이 여학생에서는 '중' 그룹이 높게 나타났지만 전체 학생 수의 비율로 본다면 '상' 그룹의 학생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선행연구(이혜경, 200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요즘 초등학교에서 정기적인 구강보건교육이 실시되어지고 있는 초등학교가 많아 구강보건지식 수준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간주된다.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구강보건지식의 수준을 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선행연구(김연화, 2006)의 연구와는 상이한 결과이며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높은 지식수준을 보였다. 학년에 따라서는 고학년일수록 구강보건지식 수준에서 '상' 그룹의 비율이 높아졌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5$). 또한 부모의 치아건강 상태에 좋을수록 연구대상자들의 구강보건지식의 수준이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대상들은 구강보건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구강보건태도의 점수도 높은 점수를 획득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 < .05$)를 보였고, 장분자 등(2006)의 연구결과와 일치되기도 했다. 이는 초등학교 아동의 구강보건에 대한 지식과 태도는 상호 영향을 받고 학교구강보건교육 시 학생에게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기 보다는 태도 및 행동의 변화까지 유발시키는 교육이 뒷받침 되었다고 사료되며, 추후에도 지속적이고 정확한 구강보건교육으로 초등학생들의 건강한 구강관리습관을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초등학생의 구강보건지식에 따른 구강보건행동은 송귀숙 등(2011)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구강보건지식의 수준이 높을수록 잇솔질 방법의 문항에서 '윗니는 위, 아래 아랫니는 아래, 위'의 문항에서 높은 비율을 나

타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5$). 이렇듯 일반적으로 구강보건지식과 행동 간에 관련성이 있을 것이라는 잠정적인 가설과는 합당한 연구결과를 보여 Poutanen 등(2005)의 연구에서 나타난 낮은 구강보건지식은 바람직하지 않은 구강보건행동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구강보건지식, 태도, 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비교한 결과 지식과 태도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고($P < .05$), 뚜렷한 양적 선형상관 관계를 보였다. 또한 구강보건태도에 따른 구강보건행동 중 하루 잇솔질 횟수와 상관관계에서는 강한 양적 선형상관 관계를 보였다. 이는 구강보건지식이 낮게 되면 구강보건행동과 태도의 올바른 결과를 실천하지 않았다는 결과라 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구강보건교육은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정확하고 실천이 가능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구강보건교육의 양과 질적으로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혜경 등(2008)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며 본 연구에서는 구강보건행동을 세분화하여 상관분석 하여 초등학생들의 구강관리 성향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로부터 초등학생 대상으로 주기적인 구강보건교육으로 초등학생의 구강보건지식과 태도, 행동의 변화로 인하여 자신의 구강건강을 스스로가 관리할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전개함으로써 교육성취도 효과는 물론 구강건강증진도가 향상될 것이며, 더 나아가 국민의 구강건강도는 매우 증진될 것이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가 일부 지역에 한정되었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제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된다. 하지만 구강보건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구강보건태도, 구강보건행동의 경향을 발견할 수 있기에 초등학생들의 구강보건 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또한 일반적인 특성에서 초등학생들의 정확한 답변을 얻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기에 후속연구가 연구대상자의 범위를 확대시켜 심도 있는 연구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V. 결 론

본 연구는 초등학생들에게 예방치료의 필요성과 치아우식에 관한 조기보철치료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설문에 참여시키는데 목적을 두었으며, 구강보건지식, 태도 및 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비교한 결과 지식과 태도, 행동 간의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특히 하루 잇솔질 횟수와 구강보건태도가 높은 양의 상관관계($r=.853$), 구강보건지식과 태도에서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r=.674$)가 보여 지식과 행태는 서로 관련성이 있다고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연구대상자들의 구강보건에 관한 지식과 태도 및 행동이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다. 따라서 학교구강보건교육 시 학생들에게 구강보건 지식뿐만 아니라 태도와 행동의 변화를 유발시킬 수 있는 진정한 구강보건교육이 초등학생 시점부터 시행되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생각된다. 어렸을 때부터 치과방문을 통한 조기보철치료는 매우 중요하므로 이 분야에서 구강보건과 관련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구강보건사업지원단. 2007 최신 구강보건 지표 모음집. 보건복지부, 2007.

김숙진. 초등학생의 구강보건에 관한 지식, 태도, 행동과 구강상태간의 관계.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김연화. 울산시 초등학생의 구강보건지식 및 행동에 관한 연구. 치위생과학회지, 6(3), 227-230, 2006.

김주환, 김종배, 최유진, 김종열. 구강보건학. 고문사, 231-3, 1983.

김종배 외 6인. 공중구강보건학. 4판. 고문사, 1-7, 227-230, 2004.

박춘호, 정인성. 부산지역 유치원 아동의 우식치 실태와 부모의 구강보건지식에 관한 연구. 대한치과기공학회지, 24(1), 83-93, 2002.

배현숙. 우리나라 정신장애아동의 구강보건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보건복지부. 2003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보건복지부, 2004.

송귀숙, 류다영. 초등학생의 구강보건지식, 태도 및 행동에 관한 조사연구. 치위생과학회지, 11(1), 39-47, 2011.

이종도, 김정숙. 구강보건 실태와 치과보철치료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대한치과기공학회지, 30(1), 110-119, 2008.

이혜경. 초등학생들의 구강보건지식 수준이 구강보건행동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이혜경, 박정순, 김미정. 초등학교 아동의 구강보건에 관한 지식과 행동의 상관관계 연구. 치위생과학회지, 8(3), 155-161, 2008.

장분자, 송경희. 초등학생의 구강보건지식과 행동에 관한 연구. 치위생과학회지, 6(3), 201-206, 2006.

통계청. 국민건강보험 이용실태. 통계청, 2001.

Poutanen R, Lahti S, Hausen H. Oral health-related knowledge, attitudes, and beliefs among 11 to 12-year-old Finnish schoolchildren with different oral health behaviors. Acta Odontol Scand, 63(1), 10-16, 2005.